



엄마표 테니스

5살, 3살 남매의 엄마로 아이들과 정신없이, 그리고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어느날 <엄마표 영어>에 대한 책을 읽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 '엄마표 000을 해보면 어떨까'. 이왕이면 엄마도 좋아하는 것으로. 뛰어놀기 좋아하고 활동적인 아이들이 신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래, 엄마표 테니스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좌충우돌 테니스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글, 사진_ 하정화 객원기자

[1편] 아이들에게 공놀이의 재미를 느끼게 해주자

엄마표 테니스를 결심하게 된 이유?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줄넘기 학원'이라고 적힌 차량을 보았다. 초등학교 중에서 줄넘기를 배우러 학원에 가는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긴 했지만 그 시절이 까마득하기만한 아줌마에게 문화 충격이었다. 요즘 초등학교별로 줄넘기 인증제를 비롯해 체능 인증제를 실시하는 곳이 많아지면서 줄넘기를 학원에서 배우기도 하고 줄넘기 급수도 매겨진다는 거다.

"남자애들은 학교 들어가면 운동 한 두개는 좀 해야 하잖아. 그래서 축구 클럽도 보내는 거고 수영은 좀 일찍 배워두면 좋고, 공부 말고도 운동도 신경써려니 아주 머리 아파. 돈도 무시 못하고."

초등학교 아이를 둔 친구 엄마의 이야기가 예사로 들리지 않는다. 사교육이라면 아직은 거부감부터 드는 내가 요즘 교육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 못한 것인지. 혹시라도 아이들이 운동조차도 놀이가 아닌 점수와 평가를 받는 '재미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을까 괜한 걱정부터 들었다.

"어릴 때부터 영어 동요를 자연스럽게 듣고 영어 그림책에 자주 노출된 아이들은 나중에 영어를 배울 때 좀 더 재미있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느 책에 적힌 문장을 읽으며 운동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었다. 평소에 줄넘기, 공놀이라고는 잘 접해보지 않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점수를 잘 받아야 하니까 줄넘기를 빨리 연습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면, 다른 친구들도 다 하니까 너도 축구, 야구를 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듣는다면 어떨까. 물론 천부적으로 운동을 좋아하고 재능이 있는 아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아주 괴로운 시간이 될지도 모른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와 하는 놀이의 개념으로, 공놀이를 비롯한 체육을 자주 접하도록 해준다면, 훨씬 자연스럽게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 성향을 파악하고 공놀이와 친해지는 시간

'엄마표 000'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보다 내 아이의 기질과 성향을 잘 알고 있는 엄마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아이들에게 맞게, 훨씬 잘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집 1호(46개월, 오른손잡이 남아)는 (대부분의 남자 아이들이 그렇듯이) 아주 활동적인 편이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에 흥미를 느껴서 처음에는 무척 즐겁게 하지만 반짝할 때도 많아서 재미의 요소를 계속 추가시켜줘야 싫증을 내지 않는다.

2호(23개월, 왼손잡이 여아)는 요즘 "나도"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할 정도로 첫째가 하는 것은 뭐든 따라서 같이 하려고 한다. 그래서 엄마표 테니스를 진행할 때 2호의 수준도 함께 고려해야 했다. 다행히도 둘 다 공으로 하는 걸 좋아해서 우선은 공놀이의 재미를 느끼게 한 다음 '테니스가 어떤 것인지' 알려줘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마침 마트를 갔는데 완구 코너에 공놀이와 관련된 장난감들이 많았다. 말랑 말랑한 공으로 할 수 있는 캐치볼을 사서 조금씩 해보기로. 처음에는 어려워하더니 공이 손바닥 도구에 붙을 때마다 "까~" 소리를 지르며 신나게 노는 아이들. 이제 차에 캐치볼을 넣어다니며 넓은 운동장이나 공원에 갈 때 조금씩 하기로 했다. 공을 높이 던져 받는 놀이도 해보고 굴러가는 공을 잡으러 다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즐거워한다. 공으로 물건 맞추기, 통에 넣어보기, 축구처럼 공을 발로 차면서 굴러보기 등 공으로 할 수 있는 놀이는 무궁무진하다.

공놀이를 하면서 가끔씩 던지는 첫째의 질문. "엄마 이거 야구예요?" 집 앞 공터에서 동네 형들 몇 명이 야구하는 모습을 보고 "형들이 야구하는 거야"라고 가르쳐 줬더니 공으로 하는 건 죄다 야구인줄 아는 1호.

공놀이에 재미를 좀 붙이고 나면 엄마가 '테니스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마.



(엄마 생각) 엄마표 테니스에서 가장 피해야 할 건 '조급함'이다. 엄마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또 이만큼 인풋을 주었으니 '우리 아이, 이제 결과를 좀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하는 마음. 고사리 같은 손으로 힘껏 공을 던지는 아이들, 공을 쫓아가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 그리고 엄마 아빠와의 공놀이가 신나서 까르르 웃는 아이들의 표정. 당장 엄마가 기대하는 만큼 보여주지 않더라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 자체가 값지고 생각한다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더라도 괜찮다.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취미로 운동 하나 정도는 했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아이들에게 공놀이의 흥미를 주는 것까지가 엄마의 몫. 계속 할지 그만 둘지는 아이들의 선택일 것이다. 1

마트에는 아이들이 공놀이를
쉽게 즐길 수 있는 장난감이 많다.
온라인에서도 다양하고
재미있는 캐치볼
장난감을 판매한다



공놀이가 좋아요!

캐치볼 찌찌이 글러브와
공만 있으면 즐겨워하는 아이들

